

고전음악의 이해 과제

2016025041 소프트웨어전공 하태성

1. 카논과 푸가를 조사해보고,

- 하나의 선율에 2성 이상의 화음을 결합해서 음의 수직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화성학인 반면에 두 선율이 겹쳐지면서 수평적 어울림을 만드는 대위법이 있습니다. 카논과 푸가, 인벤션 등이 모두 대위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이러한 대위법을 토대로 하는 음악들을 중간고사 전에 배운 다성음악(polyphonie)라고도 합니다.
- 카논은 14세기 이전부터 사용해왔으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성부로 구성되어, 뒤따르는 성부가 앞선 성부를 마치 돌림노래와 같이 엄격히 모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림노래는 가장 단순한 카논입니다. 엄격한 모방이라고 할때 엄격하다는 말의 뜻은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 즉 카논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종류로는 엄격 카논(Direct, strict canon), 반행 카논/거울 카논(Inversion canon), 역행 카논(Retrograde canon), 확대 카논(Augmentation canon), 축소 카논(Diminution canon), 더블 카논/군 카논(Double canon), 유한카논(Limited canon), 무한 카논/순환 카논(Unlimited canon), 나선상 카논(Spiral canon) 등의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논이 사용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에서 제 3변주곡은 같은 음정으로 카논을 사용하는데, 계속 1도씩 음정을 높여가며 마지막 27번은 9도 카논으로 되어있습니다.
- 카논이 대위법 속에서 더 복잡해지고 자유로워지면 푸가라는 음악적 양식이 됩니다. 주제부를 모방하며 딸림조 조성으로 변조하여 뒤따라가며 조성적으로 대위시키면서 모방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성부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악구를 삽입구(episode)라고 합니다. 카논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워 작곡가의 개성을 더 발휘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푸가는 16세기 이탈리아의 리체르카레와 칸초네가 합쳐져 독일의 푸가로 발전하였으며, J.S.바흐가 이 양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후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생상스 등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푸가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와 응답 형식입니다. 카논은 단순히 선율이 반복되어 주제, 응답이 애매/모호했지만 푸가는 한 성부가 주제를 제시하면 다른 성부에서 응답을 하고, 나머지 성부는 대선율을 연주합니다. 즉 푸가는 주제, 응답, 대선율의 3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 성부에서 주제가 한 번씩 나오면 푸가의 제 1부가 끝나고, 푸가는 보통 3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제(subject, Dux)는 보통 으뜸음이나 딸림음을 시작으로 단성으로 제시됩니다. 응답(answer, Comes)은 주제가 으뜸음으로 시작했다면 딸림조로, 딸림음으로 시작했다면 으뜸조로 주제를 모방합니다. 대선율(counterpoint)는 코메스와 비슷한 타이밍에 등장하며 코메스가 등장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쓰이며 대주제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덕스나 코메스에 맞게 대위되어 제시됩니다.

2. 아래 링크된 음악을 듣고, 감상 소감을 써주세요.

- J.S.바흐 <음악의 헌정>(Musical Offering) 중 “전조를 통한 카논”
 -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일단 악기 소리가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악기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거칠면서도 뭐라고해야할까 귀에 쏙쏙 파고드는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엔 선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단조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듣기전에는 카논하면 돌림노래같은 살짝 어색함이 느껴질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곡을 듣고나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가 바뀌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돌아가는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전혀 어색하거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속 조가 올라가는것 같았는데 어느새 아까 들었던 부분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연주를 해도 음악이 끊기지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곡을 끝까지 들은 후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니, 음악 정보와 함께 뫼비우스의 띠, 화가 에셔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무한대를 표현한 작품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참 이 노래와 잘 어울리는듯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J.S.바흐 <푸가의 기법>(The Art of Fugue)
 - 이 곡의 초반부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느낌은 뭔가 경건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르간으로 연주를 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파이프오르간이란 악기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이 곡도 좋게 들었습니다. 그 후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 아까 조사한 푸가를 잘은 몰라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선율이 조금씩 다르면서 계속 돌림노래처럼 반복되서 들리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곡은 미처 시간이 안되어 반정도밖에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되게 좋았습니다. 괜히 바흐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화성음악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